

투자목적 및 전략

이 투자신탁은 국제시장에서 금 현물거래 시 기준가격으로 사용되는 LBMA Gold Price PM (USD) (이하 "기초자산")의 성과를 추종하는 장내 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<기초자산 소개>

LBMA Gold Price PM (USD) : 런던 금시장협회 (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)를 통해 매일 런던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미국달러화 표시 금 현물가격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금 현물 거래 시 기준가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
펀드내역

펀드규모(NAV) 358억 원

펀드유형 특별자산파생형 투자신탁[금-파생형]
-파생상품투자 : 50% 이상
-채권투자 : 100% 이하

설정일

(운용펀드 : 2008년 07월 14일)

- 클래스 A : 2008년 07월 14일
- 클래스 A-E : 2014년 06월 12일
- 클래스 C : 2008년 07월 14일
- 클래스 C-E : 2009년 04월 01일
- 클래스 C-F : 2019년 05월 31일
- 클래스 C-P2(연금지축) : 2019년 09월 05일
- 클래스 C-P2(연금지축)E : 2018년 05월 31일
- 클래스 S : 2014년 04월 23일
- 클래스 S-P2 : 2017년 12월 05일

벤치마크 LBMA Gold Price PM (USD) 95% + Call 5%

신탁업자 국민은행

환매대금 지급일

구분	기준가격 적용일	환매대금 지급일
17시 이전	3영업일	5영업일
17시 경과후	4영업일	6영업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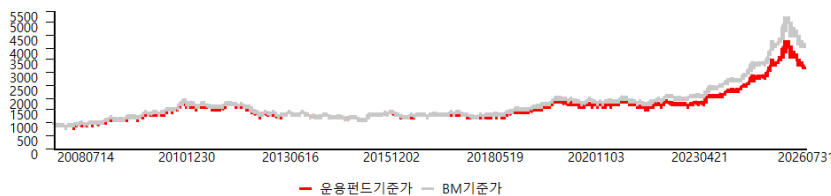
투자위험등급 2등급(높은 위험)

1	2	3	4	5	6
---	---	---	---	---	---

펀드 운용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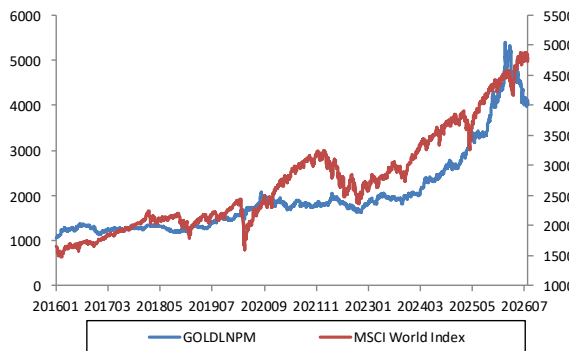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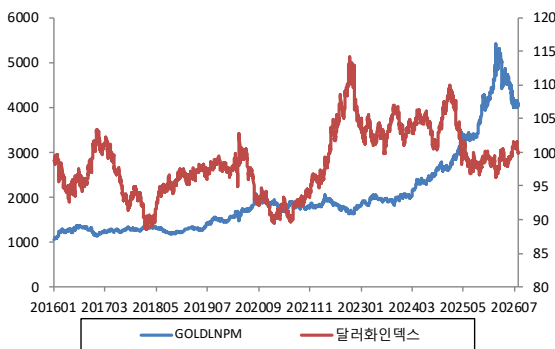
	누적수익률							
	1개월	3개월	6개월	1년	2년	3년	5년	설정이후
운용펀드	1.75%	-9.68%	-24.77%	16.70%	55.87%	85.05%	88.42%	225.01%
클래스 A	1.67%	-9.92%	-25.17%	15.56%	52.85%	79.70%	79.36%	171.76%
클래스 A-E	1.69%	-9.86%	-25.07%	15.84%	53.59%	81.01%	81.58%	129.23%
클래스 C	1.62%	-10.07%	-25.40%	14.88%	51.06%	76.56%	74.14%	143.60%
클래스 C-E	1.62%	-10.04%	-25.36%	14.99%	51.35%	77.07%	74.99%	139.80%
클래스 C-F	1.70%	-9.80%	-24.95%	16.20%	54.56%	82.73%	84.10%	149.47%
클래스 C-P2(연금지축)	1.67%	-9.92%	-25.16%	15.57%	52.88%	79.76%	79.56%	103.09%
클래스 C-P2(연금지축)E	1.69%	-9.86%	-25.07%	15.84%	53.59%	81.01%	81.57%	136.41%
클래스 S	1.69%	-9.85%	-25.05%	15.90%	53.75%	81.29%	82.04%	124.60%
클래스 S-P2	1.69%	-9.84%	-25.03%	15.95%	53.87%	81.50%	82.39%	138.72%
벤치마크	2.02%	-8.59%	-22.75%	23.43%	68.25%	104.18%	118.08%	308.51%

-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.
-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-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,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(세전 수익률)
-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.



출처: AITAS 시스템

인덱스 현황 (출처: Bloomberg - 2026년 7월말)



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.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,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,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.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·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, 투자대상국가의 시장,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.

보수 및 수수료

보수(순자산총액 기준)

- 클래스 A : 총 연 1% (판매 0.5%)
- 클래스 A-E : 총 연 0.75% (판매 0.25%)
- 클래스 C : 총 연 1.6% (판매 1.1%)
- 클래스 C-E : 총 연 1.5% (판매 1%)
- 클래스 C-F : 총 연 0.53% (판매 0.03%)
- 클래스 C-P2(연금저축) : 총 연 1% (판매 0.5%)
- 클래스 C-P2(연금저축)E : 총 연 0.75% (판매 0.25%)
- 클래스 S : 총 연 0.7% (판매 0.2%)
- 클래스 S-P2 : 총 연 0.66% (판매 0.16%)

(공통사항)

운용 0.45%, 신탁 0.0375%, 사무관리0.0125%

선취수수료

- 클래스 A : 납입금액의 1.0% 이내
- 클래스 A-E : 납입금액의 0.5% 이내

후취수수료

- 클래스 S : 환매금액의 0.15% 이내 (3년 미만 환매 시)

환매수수료

없음

시장동향 및 운용현황

7월 금 가격은 상승 마감했습니다. 미국 고용과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었고, 달러 약세와 국채금리 하락이 금 가격을 지지했습니다. 미·이란 간 협상 재개 가능성과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된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 다만 7월 FOMC에서 일부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등 매파적 기초가 확인됐고, 중동 긴장에 따른 유가와 장기금리 상승이 금의 상승 폭을 제한했습니다.

시장전망 및 운용계획

미국의 물가와 고용지표에서 경기 둔화가 재확인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후퇴하고 달러와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금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글로벌 중앙은행의 실물 금 매입 기초 또한 가격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미·이란 협상 결렬과 원유 수송 차질로 유가 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확대될 경우, 실질금리 상승 부담이 안전자산 수요를 상쇄하며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입니다.

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.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,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,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.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·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, 투자대상국가의 시장,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.